

## ‘다모클레스의 검’ 아래 있는 한국경제



“옥좌에 앉아보고 싶나? 그럼 한번 앉아보게”

이용택 백상경제연구원장  
ytlee@sedaily.com

기원전 4세기 시칠리아의 왕 디오니시오스는 신하 다모클레스가 옥좌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자신을 부러워하는 것을 알고 하루 동안 옥좌에 앉아보라고 권했다.

냉큼 옥좌에 앉은 다모클레스가 행복해 한 것도 잠시, “천장을 바라보라”는 왕의 말 한마디에 혼비백산해 옥좌에서 도망쳤다. 바로 머리 위에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칼이 말총 한 가닥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가. 난 항상 내 자리가 위태하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 머리 위에 칼을 매달고 있다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쓰이는 ‘다모클레스의 검’이라는 말의 유래다. 이를 망각한 권력자는 어느 순간 권력을 잃었고, 기업은 경제전쟁에서 밀려 도태됐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는 이런 기업을 수없이 목도했다. 한때 세계적인 투자은행이었던 리먼브러더스도 한국을 비롯해 17개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다모클레스 조기경보시스템’이라는 분기보고서를 내놓다 정착 자신이 그 칼에 맞아 몰락했다.

### □ 다모클레스의 검

- ◆ 권좌(權座)는 한 올의 말총에 매달린 칼 아래 앉아 있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라는 점을 빗댄 서양 속담으로, 절박한 위험을 상징



Richard Westall(1765~1836)의  
다모클레스 검(1812년)

지금 우리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 시퍼런 칼날이 떨어질 수도 있는 위기가 바로 머리 위에 걸려있는데 그 사실조차 모르는 듯하다. 탄핵까지 당하면서 대통령직을 박탈당한 박근혜 정부가 그랬다.

위기는 결코 갑자기 오지 않는다고 했다. '1:29:300'이라는 법칙도 그래서 나왔다. 심각한 사고 1건이 일어나기 전에 29건의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고, 그 전에 300건이나 되는 위험요소가 나타난다는 얘기다. 이를 무시했다가 큰 사고를 맞는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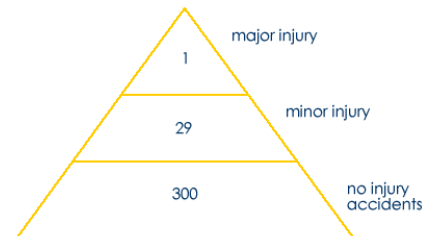
이는 세월호사고, 최순실 국정농단사건과 같은 대형 참사에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다. 경제, 조직문화, 사회분위기 등에도 모두 적용된다.

한국경제는 이미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그동안 우리를 먹여 살리던 주력산업이 줄줄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울들어 성장세가 미약하나마 회복되고 있지만 언제 꺾어질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가진 자와 못 가진자, 권력층과 비권력층, 갑과 을의 양극화구조마저 심화되면 지금의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비이성적 탐욕을 버리고 힘을 모아야 한다.

저성장세가 고착화되고 있는 경제상황과 미래 먹거리 부재, 이것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암울한 현실이다. 그동안 고도성장을 해온 대한민국이 어쩌면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지 모른다. 자칫 잘못하면 커져만 가는 갈등이 폭발하면서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해 머리 위에 걸려 있는 칼이 떨어질까 걱정된다.

#### □ 하인리히의 법칙



- ◆ 1931년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Herbert William Heinrich)가 펴낸 「산업재해 예방: 과학적 접근」이라는 책에서 소개된 법칙. 큰 재해와 작은 재해 그리고 사소한 사고의 발생 비율이 1:29:300이라는 것

